

2019 중랑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2019. 8. 23(금)

- 일 시: 2019. 8. 23(금)
- 장 소: 7층 소회의실
- 심사위원: 4명

(10시51분 회의시작)

○간사 ○○○: 간사 ○○○입니다.

회의순서는 심사위원 소개 후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공무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5조에 의거 호선 선출하니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후 부위원장은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선출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 △△△ 위원님께서 △△△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기에 △△△ 위원님께서 2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선출되신 황규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갖고 지금 중랑구의회의 하나의 행정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과 또는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이끌어가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님!

○△△△ 위원: △△△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기에 △△△ 위원님께서 2년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입니다.

앞으로 △△△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좌를 잘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58분)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9년도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금번 실시하는 공무여행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중랑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실시가 논의되었고 그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계획서가 제출되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사항은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정 제4조에 의거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와 기간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목적은 제8대 중랑구의회 의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외선진 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중랑구 정책사업에 접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일정은 총 8박 10일로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중랑구의회 의원 17명 중 16명이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약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수 국가는 미국 서부지역 금융·행정 중심이며, 상업·제조의 주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업·상업·금융업 중심지 역할을 하는 밴쿠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외연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신 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위원입니다.

일정표에 나온 목적사항들 가지고 이 시간에 해외여행일정 내용을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9월17일 날 보면 국외독립운동가 독립활동발자취 확인 이게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독립운동 한반도 3.1운동 독립운동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구의원들이 눈으로만 시찰하고 메모만 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들, 사료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중랑구 역사공원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 가면 역사적인 사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꺼번에 제가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랍니다.

2일차에 스탠포드 대학 방문인데요,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및 현장시찰인데 아마 여기 학교 교육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거기 갔을 때 고학력자들이 미래 4차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또 4차 산업을 어떤 스케줄로 훈련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지 이것도 학교 갔을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일차 로스앤젤레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관 발전방향 모색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은 주택들이 소형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달리 주택이 32평, 35평 그러는데 이런 데 가서 소형 임대주택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갔을 때 소형 임대주택을 노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것까지 겹쳐서 사례를 파악해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국외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확인하셔서 우리 망우묘지공원과 연계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스탠포드 대학의 선진교육 문화를 4차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가를 중랑구에 와서 교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들 수합해서 적용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나름 재생사업이라든가 소형 임대주택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 혜택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동의하고요, 저도 바라는 바인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신 경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심사 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다녀오신 발자취가 없네요.

이번에는 원하시는 대로 다녀오셔서 남기는 자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피드백이 없이 그대로 끝나버리고 보고자료가 없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갔다 왔을 때 어떤 점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고 적용시킨 것이 무엇인가라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위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 저희가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15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마련토록 해서 위원님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네, 거기에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금년까지 세 번째 운영위 나오는데 매년 할 때 말이 갔다 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갔다 온 것을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자기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실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아까 잠깐 우리 좌담시간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서 필히 갔다 왔을 때 의원님들 각자 사례를 가져온 것을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 최종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해외여행의 목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적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히 실천해 주기로 뜻을 박아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 네, 제가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실질적으로 여기 16명의 여행자로 되어 있는데 16명 외에 행정직원이라든가 동반하지는 않습니까?

○간사 ○○○: 6명이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 6명이 동반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PPT라든가 동영상 부분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아마 여기서 의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목적에 부합하고 맞는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런 부분이 발전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셔서 사후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 네,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들을 다 하셔서 사실 저는 굳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작년에 굳이 꼬집어 얘기하자면 독후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인 즉 전자에 말씀하신 분들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어디에 가서, 간 것은 알죠, 무엇을 견학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와서 어떤 부분에 접목을 해서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독후감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서울수도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만 해도 사실은 적지 않은 250억 원이라는 거액이 5년 거치로 이미 결정이 돼서 금년에 70억 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물론 재생사업이라는 그 자체도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어느 대학교 교수이고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어느 사업체가 그 부분에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켜볼 때는 정말 진행과정이 참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도 해외에 가서 잘 견학하고 접목을 꼭 해서 이런 거액들이 피와 같은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보람 있게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님께서 재생사업이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배워서 우리 중랑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 명칭인가요?

○간사 ○○○: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면서 ‘연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무국외실무연수’라든가 그런 ‘연수’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진,

○간사 ○○○: 네, 행자부의 방침인데요, 저희가 이 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외출장’으로 ‘여행’이 아니고 ‘출장’으로 저희가 10월경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출장’보다는 제 생각에는 ‘연수’라는 의미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간사 ○○○: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권고안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도 그렇고 ‘여행’

도 그렇고 이것은 뭔가 외유성이 자꾸,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국외실무연수’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명칭을 바꿔준다면 구민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여행’하고의 의미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저도 그쪽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정에도 많이 알고 계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행 목적이라고 하지만 연수 목적에 맞게끔 오셔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 오셔서 나중에는 꼭 한 번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네,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7일차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커뮤니티 마을개선사업 지원제도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도입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일을 합니다.

마을개선사업이 뭐냐 하면 지원되는 자금이 문제거든요.

자금을 어떻게, 금융을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것에 따랐을 때 영세서민주택금융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토목이나 이런 데 말고 서민금융주택을 마을개선사업에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말은 커뮤니티 마을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을개선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즉, 이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들어갈 때는 집단적 마을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면목동이다 그러면 면목동에 마을개선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 그러면 서민금융주택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15년도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사실 우리 중랑구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의회나 직원들이나 몰라요, 소규모 주택자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서 수리하고 이자 얼마씩 해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업무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 언어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잘되어 있어요, 소규모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구민들이 몰라서 비싼 이자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어 선택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마을개선사업 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갔다 오시면 이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검토해 본다면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 그다음에 여행경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 여행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원 여섯 분이 같이 동행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경비를 보면 1인당 350만 원씩 책정이 돼서 모두 5,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여행경비에 대해서 5,603만 1,680원이 되어 있고 예산지원이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1번부터 16번 의원님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해서 체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경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여행경비에 대해서.

○△△△ 위원: 저는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것인데 기왕이면 선진국에 가서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연수가 돼서 그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다면 그 이상 더 바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비 가지고 구태여 많다, 적다라는 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금년도에 상향 조정이 됐죠?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출장이 많은 것도 괜찮은데 몇 퍼센트 상향됐나, 작년도 경비하고 올해하고.

○간사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320만 원이었는데 올해 350만 원으로 올라있고, 전체 구 서울시로 봤을 때 강남이나 서초는 400만 원, 저희가 30% 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비를 많이 써서 좋은 제도만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이렇게 후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 위원: 다녀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죠.

○위원장 △△△: 아마 이 경비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풍족하게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짤으리라 생각하고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더.

○위원장 △△△: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조금 더 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경비하고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행목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응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이시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갔다 오셔서 위원님들께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또 다른 논의하실 안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종료)